

중기 '돈구하기' 어려워진다

은행 중기대출 금리상승세 여신심사 까다로워... 비은행금융기관도 문턱 높아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의 담보대출과 신용, 마이너스대출 등 중기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간해진 대출 심사로 중소기업들은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보다 2~3배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등 비은행기관의 대출 유죄기에 몰입하면서 중소기업의 '돈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은행별 중소기업대출금리'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직전 3개월간 취급된 대출금리 평균치)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보증서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전월과 비교해 0.02%~0.11%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보증서담보대출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물적담보대출의 금리도 한달새

0.01%~0.07%가 오르는 등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은행권의 여신심사가 간헐적이면서 부족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찾는 중소기업도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금 잔액은 75조88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9,226억원(4.0%)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8조원 가량 급증한 것이다. 기관별로 보면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빌린 대출금 잔액이 34조3,9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저축은행은 22조409억원, 새마을금고는 6조7,00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저축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중기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20조2521억원에서 올 6월 말 21조5315억원으로 6.3%(1조2794억원) 늘었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에서 중

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달한다.

저축은행의 기업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9월 말,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7.9%로 시중 은행보다 4.5%포인트 가까이 높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높은 금리 부담을 감수하며 비은행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을 포함한 비은행에 대해서도 가계 및 기업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에다 수출마저 힘들어진 중소기업들은 매출 감소와 현금흐름 악화에 사달될 수밖에 없다"며 "갈수록 높아지는 대출문턱과 금리리 인해 자금 사정까지 나빠지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임실치즈와 필봉농약 체험해보요”

조달청, 임실군과 업무협약

조달청은 25일 임실군청에서 심민 임실군수와 임실치즈 및 필봉농약 체험 여행 상품 지원과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기관(조달청)과 지자체(임실군)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임실군의 여행상품인 임실치즈 및 필봉농약 체험의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임실군의 여행상품은 치즈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중요무형문화재인 필봉농약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실군의 여행상

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학생들은 물론 각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상품은 지자체와의 직접 계약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췄으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상품을 선택, 직접 납품요구 하도록 하는 등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여행상품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별 특색 있는 다양한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내 여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경진원, 중국·동남아유학생 수출지원단으로 무역 어려움 해결

도내 동남아, 중국 유학생들이 움직이는 보부상으로 또는 중국과 동남아를 잇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민간 대사 역할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자 하나 무역 전문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중국, 동남아 유학생 수출지원단 사업을 추진중이다.

당초 중국 1개 국가로 시작했던 수출지원단 사업은 올해 동남아까지 확대돼 FTA 체결국을 대비해 확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남아의 대표역할을 하는 유학생 수출지원단원들은 도내업체와 바이어간 정확하고 빠른 업무 교신을 통해 바이어가 요구하는 사항을 도내업체 실무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유학생들은 통번역 지원, 바이어 발굴, SNS 블로그 운영을 통해 무역실무를 익히며 도내기업 제품을 자국에 홍보해 판매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내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에도 적극 활용돼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경진원 홍용용 원장은 “내년에는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운영해 유망 유학생들을 발굴하고 적극 활용해 도내 신규 수출 기업들의 수출기반 마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참일꾼상 수상자 3명 선정

김철배 과장대리 · 박세일 계장 · 이지은 주임 수상 영예



김철배 과장



박세일 계장



이지은 주임

농협은행 최용구 전북본부장은 “참일꾼상 수상자를 중심으로 축하하고, 전북의 위상을 높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자신의 직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 우대 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도민을 위한 은행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인재용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중앙본부 주관으로 선정하는 2016년 참일꾼상 수상자 3명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농협은행은 지난해부터 조직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을 발굴 격려하기 위해 참일꾼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3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참일꾼상을 수상한 전북지역 3명의 직원은 김철배 과장대리(중화산동지점), 박세일 계장(진안군지부), 이지은 주임(전북도청지점)이다.

성실한 고객응대와 업무추진으로 김철배 과장대리는 여신업무, 박세일 계장은 고객응대, 이지은 주임은 마케팅부문에 큰 감점을 나타내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 판로 확보 새모델 제시

전북중기청, 해외바이어·국내 대형 유통체인망 초청상담회

전북도청과 전북중소기업청, 전북 KOTRA 지원단은 지난 24일 전주 로니관광호 호텔에서 전북수출지원기 관협의회와 공동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내수 판로확대를 위해 '제조사-해외 바이어, 대형유통체인망과의 만남의 장'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국내 판로개척 및 판로확대를 위한 '대형유통체인망과의 만남의 장'으로 진행됐다.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해외바이어 사전설명회와 1:1 밀착 수출상담, 해외 바이어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제품과 기술력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장 현장방문으로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해외바이어 25개사가 참석해서 도내 60여개 제조업체들과 저녁 늦게까지 1:1 상담을 한 결과 1,120만불 상당의 수출성사가능액 성과를 거뒀다. '대형유통체인망과의 만남

의 장'은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내수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 대형유통망 15개사 구매 담당자를 초청해 도내 중소기업 150개사의 수출, 내수 판로확대를 위해 '제조사-해외 바이어, 대형유통체인망과의 만남의 장'을 개최했다.

도내 중소기업과 국내 유통업체 간 1:1 구매 밀착상담을 위해 사전에 제품 분야별 입점 가능성을 고려해 적합한 유통업체 상품기획자를 사전에 배정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났으며, 오성제과 등 5개사는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사에 입점이 성사됐고, 70여개사는 대형유통사가 계속 상담을 희망하는 등 향후 80여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국내유통체인망과의 만남의장에 참석한 CJ프레시웨이 박규원 팀장은 “신규 입점품목을 발굴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유)깃들 옥치원 대표는 “롯데마트와의 상담을 통해 전국 40여개 롯데마트 매장을 비롯해 해외 매장에도 납품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캠코, 전북지역 압류재산 총 82건 공매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28일부터 30일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32억원 규모 총 82건을 온라인을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리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에는 군산시 나운동 소재 근린생활시설과 군산시 나운동 소재 대지, 김제시 순

동 소재 공장 등이 있다.

공매 참여 시 입찰자 현황 등 권리 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입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주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